윤석천의 '우리와 경제'

그 누가 노인이 되는 걸 반기랴만

오랜만의 동창 모임, 졸업하고 몇 십 년 만에 보는 친구도 있다. 낯설다. 아랫배는 나오고 잔주름이 만만치 않다. 내 모습도 그럴 거다. 괜히 술 한 잔을 들이킨다.

시인은 지는 꽃이 더 아름답다고 했다. 그럴 수 있을 거다. 하나, 나는 아직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진 못한다. 지천명을 넘겼지만 부끄럽게도 나이 들어가는 자연 현상을 쉬 인정하지 못한다. 봄날 우르르 지고만 목련보다 화사하게 피어나는 장미가 여전히 더 좋다. 나만 그런 게 아닐 거다. 늙는다는 것, 노인이 되는 걸 받아들이는 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일까. 공식적인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자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얼핏 반갑기도 했다. 지난 달 26일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의 노인연령 65세를 70세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의 범주에 강제로 편입되는 게 썩 유쾌하진 않을 듯하다. 두 다리는 여전히 팽팽하고 두뇌 회전도 나름 짱짱하다면 말이다.

또 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다. 바로 '돈'이다. 나름 충분한 생활능력이 있다면 노인 취급을 받는 건 분명 서글픔을 넘어 분노를 느낄 일일 것이다.

한데 건강, 재력, 지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나이만 먹어간다면 어떨까. 대책 없는 노년이 길어진다는 건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다. 건강과 지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좋은 일자리는 언감생심이고 질 나쁜 일자리도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나마 모아놓은 재산이라도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없다면 그야말로 고통스런 노년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식 노인 연령마저 높아진다면 그야말로 인생 후반부의 삶은 끔찍할 수 있다.

한국의 노인은 유난히 가난하다. 노인 빈곤율, 자살률 공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일등이다.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국민소득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고 있다. 다시 말해 월 125만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것도 평균이다. 이들 중 다수는 월 100만 원도 호사스럽다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도 있다.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이른바 중노인들의 빈곤 문제 역시 만만치 않다. 한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심각한 건 한국 인구의 최다층인 베이비부머 세대들마저 속속 이들에 합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마당에 노인 연령이 더 높아지면 상황은 어찌될까?

정년이 예순 살로 정해졌다지만 대부분은 50대 초반이면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난다. 지난 1일 자 신문에도 국민은행의 직원 1000여 명이 명퇴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실려 있다. 중년의 실업이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 기껏해야 나날이 열악해지는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뿐이다.

비교적 늦은 나이인 60세에 은퇴한다 해도 각종 노인복지를 받을 때까지 5년간은 소득절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노인 기준 연령이 높아지면 그 기간은 다시 5년이 더 늘어난다. 이 기간을 대체 뭐로 버티란 말인가. 통상 경비나 청소 등의 일자리도 65세가 한계 연령이다. 그 후엔 대체 어쩌란 말인가.

우린 누구도 노인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건 기분 좋은 느낌을 줄 수가 있다. 노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심리의 핵심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전에 선행돼야 할 게 있다. 생물학적 건강과 물리적 재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것이 자력에 의한 것이든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든 말이다. 그게 아니라면, 노인의 기준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비참한 중노인만을 양산할 뿐이다.

지금은 가난한 노인들이 국가재정을 걱정해 그 기준 연령을 올리자고 할 때가 아니다. 혹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할 때가 아니다. 졸라맬 허리라도 있다면 그럴 수 있다. 한데 정말 우리 노인들이 그럴 여유가 있다고 믿는가? 한국의 오늘은 노인 세대의 처절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에게 또 다시 인내를 요구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린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경제평론가〉

종교칼럼

행복 찾기

김 성 덕
화정교회 담임목사

어느 농부는 자기 농장 안 호수를 관리하는 것이 늘 불평거리였습니다. 풀밭을 초토화시키는 살찐 젖소들도 이만저만한 골칫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가축을 먹이는 일도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농장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며칠 후 중개업자로부터 신문에 낼 광고문을 확인해 달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 광고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이며 보드라운 목초가 쫙 깔린 곳. 깨끗한 호수로부터 자양분이 들어오고 가축은 무럭무럭 자라는 축복의 땅." 그 광고문을 본 농부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소. 농장을 팔지 않겠소. 그 땅이 바로 내가 평생 찾고 있던 땅이오."

무슨 말입니까?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있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빗댄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행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거기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천만원만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돈을 수중에 넣게 되면, '오천만원, 일억 원을 갖게 되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미국의 한 백만장자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나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원없이 많은 돈을 써 봤다. 그러나 나는 지금 비참할 정도로 환멸을 느낀다."

그러면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시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국회의원이 되면 장관도 하고 싶고, 대통령도 하고 싶은 끝없는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 권력입니다. 빌리 그래함 목사님에게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어느 날 찾아와서 "나는 이제 늙었고, 인생의 모든 의미를 상실했다네. 나는 이제 알지 못하는 운명의 봉우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나에게 희망을 빛을 줄 수 있겠나?"라고 물어왔다고 합니다. 힘 있는 권력자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행복도 없고, 죽음 이후의 소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맹자는 인생을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맛있는 것을 먹는 것'과 '성을 즐기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성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탐닉하고 빠져드는 것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컷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입맛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세, 먹는 것과 성적인 쾌락 등을 누리게 되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더욱 넉넉한 선진국에서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은 무릉도원에서 인생을 구가하는 이의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왜 마약과 약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을까요? 왜 밤이면 진정제나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들 수 있는 사람이 그토록 많을까요? 바로 이런 현상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어도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8가지 성품을 소유하면서 행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강한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욕망의 충족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더러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다투고 갈등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불의와 타협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심령이 가난한데 있습니다. 애통 하는데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데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8가지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기 고

'하이테크 쓰레기'와 환경 오염

최 현 구
농협 안성교육원 교수

마을에 TV가 1~2대밖에 없던 1970년대에는 최대한 절약하고 고쳐 쓰는 검약의 소비가 주를 이뤘다. 반면 현재의 소비시장은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기가 무섭게 곧바로 판매가 이뤄지고, 남들보다 빨리 신제품을 구매해 써보려는 '얼리 어댑터' 소비자들이 넘쳐날 정도로 비절제의 소비가 만연하고 있다.

이 같은 무분별한 소비는 기존 제품의 불완전한 사용하에 이뤄지는, 즉 수년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제품을 신제품으로 대체하는 소비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실례로 KT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휴대폰 가입자 중 1년 이내 약정을 해지하고 휴대 전화기를 교체하는 사람이 연간 150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8%나 된다고 한다. 국민 4명 중 1명이 1년 이내에 새 휴대폰으로 교체하는 셈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현상이 휴대 전화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하이테크(High tech) 전자제품들이 아직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출시된 모델로 교체돼 자원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건 이와 같이 낭비적으로 행해지는 구매행위가 다량의 폐전자제품(일명 '하이테크 쓰레기')을 발생시켜 인류에게 환경파괴라는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신제품으로 대체된 기존 제품이 임의로 방치되거나 버려져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버려지는 폐 전자제품은 납, 수은, 카드뮴 등 50여 종의 유독 중금속이 함유돼 인체에 큰 해를 끼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 소각될 경우에는 각종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과 '퓨란'을 방출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소재는 신경계 독성 물질로까지 작용한다.

바야흐로 이제 세계는 하이테크 쓰레기(폐 전자제품)의 재활용 문제를 국가차원의 필수 어젠다로 추진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일찍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제품 원료는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자원화하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정책을 통해 하이테크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크게 높였다.

반면 매년 6600만여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폐 전자제품 재활용률은 EU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폐 휴대전화기(연간 2000만여대 발생) 재활용률은 4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절대 부족국가이다. 지금 세계도 천연자원 부족으로 더 이상 채굴할 광산이 없다고 한다. 국가생존 차원에서 하이테크 제품의 무분별한 구매습관 타파와 폐 전자제품의 100% 재활용은 이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가 됐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기 전자제품은 3억 3000만여대(10조원의 경제적 가치)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매년 발생되는 1조원 이상의 폐 전자제품(하이테크 쓰레기)을 전량 수거한다면 금, 은, 팔라듐, 인듐과 같은 값비싼 금속자원의 확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지속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윤리적인 소비 확대와 하이테크 쓰레기의 절감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社 說

U대회 앞둔 광주시 메르스 차단 총력을

정부의 기민하지 못한 대처로 인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검사 인력이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의심 환자 초기 조치 요령 등의 홍보 역시 미흡해서 감염 확산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현재 광주에서 메르스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한 곳뿐이다. 그것도 검사요원 9명이 하루 종일 매달려도 검사를 할 수 있는 환자는 20명에 불과하다.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

홍보도 미흡해서 미열이나 일반적인 감기 증세가 있는데도 불안한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감염 의심 환자의 초동조치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등이 나돌고 있다.

이 때문에 감염이 의심스러울 경우 보건소 신고와 거점 병원 이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무턱대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우왕좌왕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한다. 결국 광주시가 감염이 의심되는 고열의 정도와 기준은 무엇인지 또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최악의 사태는 병원이나 의료시설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덮치는 '지역사회 감염'이다. 개인대처법에 대한 홍보는 물론 대처 인력 확대와 24시간 비상체제 돌입, 의심 환자 초동조치에 이은 이동 제한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겠다. 감염 경로나 감염 지역 공개 등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뒤 확산을 막을 지역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광주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다. 중동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또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몰릴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대책 마련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정부, '진도의 눈물'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세월호 참사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진도군이 정부에 1600여억 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수산물 판매량이 크게 줄어 시름에 젖은 어민들, 관광객 급감에 따른 음식·숙박업계 손실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진도 경제를 살리고 참사 희생자의 추모사업을 위해 예산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진도군이 건의한 경제활성화 사업은 관광객 유치, 농수축산 및 재래시장 지원 등 14개 분야이며 추모사업으로는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공원 조성과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훈련시설 건립 등이다.

사실 진도 주민들은 세월호 침몰 직후부터 2개월 넘게 생업을 제쳐 놓고 인명 구조와 수색작업 등 사고 수습에 앞장서며 혼신의 지원을 해왔다. 어민들은 세월호에서 기름이 유출돼 양식장 미역과 전복 등 수산물 수확을 포기해야 했다. 관광객마저 끊겨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해 냉가슴만 앓아왔다.

진도의 시계는 지금도 1년여 전 그날에 멈춰 서면서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최근 추산한 진도지역 피해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관광소득 202억9130만 원, 어업소득 355억4800만 원 등 모두 558억39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같은 기간의 소득과 비교한 수치다.

그럼에도 정부는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를 보상에서 제외 시키고 입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이제 진도군과 주민들의 눈물 어린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진도군이 요청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도 국고 지원을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장발장 은행

1970년대, 방글라데시 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였던 무함마드 유누스는 자신이 배우고 가르쳐온 경제 이론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던 그는 가난한 이들이 대금업자의 희생양이 돼가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는 돈을 직접 빌려줌으로써 주민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42명에게 자비로 모두 27달러를 빌려줬다. 주민들은 그 돈으로 대금업자들의 압박에서 해방됐고, 얼마 후 빌려간 돈도 모두 갚았다.

유누스는 1983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담보와 보증 없이 소액신용대출을 해주는 '그라민은행'(Grameen Bank)를 출범시켰다. '그라민'은 방글라데시어로 '시골' '마을'을 뜻한다. 지금까지 그라민은행을 통해 800만 명이 넘는 빈민들이 혜택을 받았고, 상환율은 96%에 이른다. 유누스는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2008년부터 운영 중인 '기쁨과 희망 은행' 역시 소외된 이들을 보듬는 곳이다. 이 은행은 3년 이내의 출소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자립을 위한 무담보대출 은행으로 창업교육부터 시작해 창업 자금 대출, 사후 관리까지 맡고 있다.

'레 미제라블' 주인공 이름을 따온 '장발장 은행'도 있다.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들에게 무담보·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인간신용은행이다.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직 벌금을 낼 형편이 못돼 감옥에 들어가야하는, '가난이 교도소'인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꿔보려는 움직임이다.

4일 설립 100일을 맞은 장발장 은행은 시민 성금으로 운영된다. 3일 현재 981명의 개인 및 기관이 3억2000여만 원을 기부했고 155명에게 2억8600만 원이 대출됐다. 1만6000원이 없어 전과자가 될 뻔했던 19살 젊은이, 15만 원 어치 생필품을 훔쳤다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마트 측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벌금형을 받았지만 돈이 없어 몸으로 때울 처지에 놓였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혜택을 받았다.

"우리 사회에서 가난은 그 자체로 형벌"이라며 "돈이 자유를 빼앗아가는 세상을 한 뼘이라도 밀어내려"하는 장발장 은행의 행보에 힘을 보탤 일이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32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